

#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딛고 '일일 1만본 생산' 돌파

### 화재 이후 임직원 헌신 결과...재가동 3개월 만 성과 정상화 본궤도...함평공장, 2028년 건설 목표도 속도

금호타이어가 지난해 발생한 화재 복구를 마치고 재가동에 들어간 지 3개월 만에 일일 1만본 생산을 돌파하며 정상화를 위한 본궤도에 올랐다.  
4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광주공장은 지난해 26일 1만565본을 생산하면서 화재 이후 처음으로 1만본을 넘어섰다. 이는 지

난해 5월 대형 화재 발생 후 9개월 만이자, 부분 재가동에 들어간 지 3개월 만의 성과다.  
광주공장은 지난해 5월 화재로 생산이 전면 중단됐으며 7월 노사특별합의에 따라 지난해 11월 하루 4000본 생산을 시작했다. 이후 지난 1월 하루 생산량 6000본

에 이어 목표했던 1만본을 달성했다.  
광주공장은 임직원들의 책임감과 상호 신뢰, 헌신을 바탕으로 위기를 극복해 연 350만본 생산 체제를 공고히 할 계획이다.  
특히 현장 정리 및 설비 복구를 진행하는 쉽지 않은 과정 속에서도 전사적인 지원과 현장을 묵묵히 지켜온 직원들의 헌신이 이번 성과의 든든한 밑거름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영모 광주공장장은 "1만본 생산은 단순한 실적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일어섰다는 결과물이자 임직원들이 함께 흘린 땀과

노력의 결실"이라며 "위기 속에서도 동료 를 믿고 자리를 지켜준 직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정 공장장은 앞으로의 공장 운영에 있어 '안전'과 '품질'을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최 우선 가치로 내세웠다.  
그는 "안전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멈추고, 품질이 타협되면 우리의 신뢰도 무너진다"며 "철저한 안전 수칙 준수와 안정적 인 품질 기준 위에서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호타이어는 함평공장 건설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함평 신공장 1단계 건설 사업은 총 6609 억원이 투입된다. 1단계로 하루 1만5000 본, 연 530만본 생산 규모로 오는 2028년 상반기 가동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지난해 12월 착공을 시작으로 오는 4월 타이어 제조 핵심시설인 경련등과 압연등 착공을 앞두고 있다.  
완공 후 함평 신공장은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 자동화 설비와 친환경 생산 체계를 갖춘 연간 530만본 규모의 타이어 생산기지로 운영된다.

또 관련 소재·부품기업의 연쇄 투자를 촉진해 전남 서부권을 대표하는 핵심 앵커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금호타이어는 중장기적으로 2단계 투자를 통해 공장 전면 이전을 추진한다.  
이전이 완료되면 생산공정 통합과 물류 효율화를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는 물론 광주·전남 대통합 시대를 맞아 광주의 완성차 제조 역량과 전남의 소재·부품 공급망을 연계하는 '초광역 미래차 산업 생태계'의 핵심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강기정 광주시장(왼쪽)이 4일 북구 대촌동 엠코테크놀로지코리아 광주사업장을 찾아 이진안 엠코코리아 대표이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시

## “반도체 패키징 산업벨트 완성에 전력”

### 광주시-엠코코리아, 반도체산업 투자·협력 논의

강기정 광주시장(왼쪽)이 4일 북구 대촌동 엠코테크놀로지코리아(엠코코리아) 광주사업장을 찾아 현장 간담회를 갖고 이진안 대표이사와 지역 반도체 산업벨트 완성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광주시가 추진 중인 '반도체 패키징 산업벨트' 조성과 관련해 핵심 파트너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다.  
강 시장은 이 자리에서 "엠코코리아는 광주 반도체 생태계의 핵심 앵커 기업"이라며 "특히 이진안 대표님은 최근 전남대 명예박사 학위 수여 등 광주와 각별한 인연을 맺고 계신 분"이라며 감사를 표했다.

이어 "기업이 투자를 결정하는 데 걸림돌이 없도록 인허가부터 인센티브까지 광주시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뒷받침하겠다"며 강력한 지원 의지를 전달했다.  
또 "기업이 광주라는 파트너를 믿고 과감한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최고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엠코와 광주가 함께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진안 대표는 "지역 대학과 연계한 인재 양성 체계를 강화하는 등 광주와 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적극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엠코코리아는 반도체 패키징과 테스트를 담당하는 후공정 분야에서 독보적 기술력을 보유한 세계적 기업이다. 특히 광주사업장은 지역 반도체 산업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으며, 지역 고용과 협력업체 생태계 형성에도 중요한 축을 담당해왔다.

현재 엠코코리아는 광주사업장 확장 및 추가 투자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체적인 투자 규모와 시기는 향후 미국 본사 이사회 승인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광주시는 반도체 후공정 클러스터의 성공적 안착과 산업벨트 완성을 위해 엠코코리아의 신규 투자가 조속히 이행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시는 이를 계기로 지역 주력산업을 고도화하고, 미래 전략 산업 중심도시로 도약한다는 구상이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 비개발자도 AI 제작...KT, '에이전트 빌더' 공개

### 코딩 없이 드래그 앤 드롭 방식

KT가 인공지능(AI) 에이전트를 비개발자도 만들 수 있도록 노코드 기반 제작 플랫폼을 선보인다.  
KT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 'MWC26'에서 산업 현장의 AX(AI 전환) 확산을 도울 AI 에이전트 제작 플랫폼 '에이전트 빌더'를 공개했다고 4일 밝혔다.  
에이전트 빌더는 개발 지식과 코딩 없이도 드래그 앤 드롭 방식으로 AI 에이전트를 제작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이미 준비된 업무 템플릿과 대화 모듈 등을 조합해 사용자 목적과 역할 정의의 AI

데이터·시스템 연결 △응답 방식 구성 △배우 등의 과정을 거쳐 AI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다.  
배우 후 실시간 로그 분석과 성능 모니터링, 품질 개선 기능을 통해 에이전트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업무에 AI 에이전트를 적극 활용하고 싶지만 기술 개발에 드는 시간과 비용 등으로 도입을 고민하는 기업 고객들을 위한 것이다.  
KT는 에이전트 빌더를 토대로 각 산업과 업무 특성에 맞춰 기능을 표준으로 구성한 '산업별 AI 템플릿 서비스'도 선보일 계획이다.  
현재 금융, 제조, 공공 분야에 실제 적용해 검증한 에이전트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산업별 특화 템플릿의 출시를 준비하고 있



MWC26 KT 전시 부스에서 참가자들이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다. 에이전트 개발에 드는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게 장점이다.  
일반적인 기업 AI 에이전트 도입은 시스템 연동과 커스터마이징을 위한 개발 부담이 크다.  
반면 KT의 에이전트 빌더와 산업별 AI 템플릿은 이미 구축된 시스템 및 데이터와 즉시 연동돼 복잡한 개발 과정 없이도 업무 프로세스를 자동화한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

## 한전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에너지 절감 견인

### 지난해 참여 세대 166만호 돌파...역대 최대 성과 4년간 전기요금 522억 차감...세대당 5만원 혜택

한국전력의 '주택용 에너지캐시백'이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요금부담을 덜어주는 대표 행동변화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국전력은 자발적인 전기 사용 절약을 유도하고 보상을 제공하는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제도가 지난해 참여 세대 166만호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성과를 달성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2022년 도입된 에너지캐시백은 매월 직전 2개월 동월 평균 대비 절감률이 3% 이상인 경우 절감률에 따라 kWh 당 30원에서 최대 100원의 캐시백을 다음 달 전기요금에서 차감해 주는 제도다.  
참여 세대는 제도 도입 4년 만에 166만호로 크게 증가했다.  
한전은 절감에 성공한 세대에 지금까지 총 522억원의 전기요금을 차감해 줬으며, 세대당 연평균 4만9000원의 경제적 혜택

을 제공했다.  
이는 국가적으로 전력망 건설을 최소화하고 전력구입비 부담을 낮추는 등 전력 운영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회적 비용을 아끼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했다는 평가다.  
이로써 에너지캐시백은 에너지 소비에 대한 국민의 인식변화를 바탕으로 생활 속 자발적인 절약 실천을 통해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요금 부담을 덜어주는 대표적인 에너지 절약 행동변화 모델로 자리매김했다.  
가정에서부터 시작된 절약 행동은 국가 전체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기후위기 극복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성과는 디지털 기반 서비스 고도화가 이끌었다.  
한전은 소비자가 스스로 에너지 소비를

관리할 수 있도록 '월간 사용량 목표'를 설정하고, 초과 사용 시 알림을 받는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 '스마트 e-리포트'를 통해 실시간 사용량과 캐시백 지급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에너지 절약 노하우 공유 게시판'을 운영해 생활 밀착형 절약 문화를 조성했다.  
최근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 고조 등으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이 가중되는 가운데 국가적 에너지 위기탈 극복하고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한 범국민적 에너지 절약 캠페인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 에너지캐시백 참여세대 200만호 달성을 목표로 전방위적인 캠페인을 전개하고, AI를 활용한 '월간 사용량 예측 서비스' 등 고객 편의를 위한 서비스 혁신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에너지캐시백은 주소지에 주민등록된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온라인 또는 한전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2026년 제14기

# 광남일보 드림리더아카데미 원우모집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은 선택입니다.  
광남일보 드림리더아카데미에서 새로운 기회를 만드십시오.

**모집기간** | 2026년 3월 13일(금) 오후 6시까지  
**개강일자** | 2026년 3월 26일(목)  
**모집인원** | 000명(선착순)  
**강의시간** | 격주 목요일 19시부터 80분간 (18시부터 석식 제공)  
**강의장소** | 광주 롯데호텔(구 라마다상무호텔)  
**학사운영** | 1년 과정 (1학기: 3월~7월 / 2학기: 9월~12월)  
**접수문의** | 광남일보 사업국 (T.062-370-7090 / 010-3394-9398)  
**접수방법** | 당사 소정양식(E-mail : gnlibo2@daum.net / FAX. 062-370-7005)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충효동 695-5) 4층, 광남일보 사업국

2026년 주요 강사진

 김경일 아주대학교 교수	 김광석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현재 위아주는 남자)	 김동규 성악가	 임진모 음악평론가	 이승재 영화평론가	 한다혜 서울대 연구위원 <트렌드코리아> 기자
--	--	---	---	---	---

